

‘조국 특사’… 내년 호남 지방선거 지각변동 예고

NEWS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라이벌 정당’ 민주당-혁신당, 선명성 경쟁 불가피 민주 공천방식에 영향 줄 듯…일당 독주 변화 주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 결정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별사면으로 법률·정치적 명예를 벗게 되는 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주 무대로 정치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

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조 전 대표는 잔여 집행 면제와 복권이 확정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호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부

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 기반이기도 하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과 10월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이미 파괴력을 검증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900여 표 차이로 따돌려 당선,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서 47.72%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비례연합은 36.26%였다. 전남지역도 조국혁신당은 43.97%, 더불어민주당연합은 39.88%를 얻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면 내년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호남지역에는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공고화 되면서 모든 입지자들이 민주당 경선에만 줄을 섰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경쟁 구도에 있는 조국혁

신당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여기에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입지자들도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당내 경선이 곧 당선이란 공식에 금이 가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전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조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할 경우, 내년 6월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는 ‘총선 들풍’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원

직이 없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직접 출마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 과정에 인물론과 경쟁력을 내세운 후보 등장으로 다자간 구도도 형성될 개연성도 높다”며 “호남 승패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역학구도가 재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또 다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내빈 및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성공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성공 개최’ 광주 세계양궁대회 자원봉사단 출범

통역·안전 등 전 분야 배치…시민 외교관 역할 기대 강기정 조직위원장 “자원봉사자 노력, 세계평화 올림”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종호 광주시장에인양궁협회장, 류미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최미선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시립창극단 축하공연, 자

원봉사자 대표 위촉장 수여, 인사말 및 격려사, 결의문 낭독, 성공 개최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9개의 화살이 과녁에 명중하는 양궁 퍼포먼스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각오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힘, 그 시작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은 평화의 올림으로 세계 속에 퍼져나갈 것이다. 광주를 자랑스럽게 빛내 달라”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도 함께 진행돼 대회 운영 개요, 자원봉사자 역할과 자세,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현장 활

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2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발됐다.

이들은 경기 운영, 현장 지원, 안전관리, 외국어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며, 9월 대회 개최에 앞서 세부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광주 국제양궁장 및 5·18민주광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두 대회에는 8월 11일 기준 77개국 1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조직위원회는 시민 참여, 교통, 숙박,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박우량 전 신안군수 “내년 선거 출마”

“고향서 마지막 소임 다하겠다” 의지 밝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군수는 11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드물게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군정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군수는 대선 정국에서 이재

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추진 사업을 높이 평가한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재생애너지 기반 주민 소득 환원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이 대통령이 ‘적극행정 대표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햇빛아동수당’ 등 주민환원형 정책 역시 지역 발전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남 유세에서 박

전 군수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혀 군수직을 잃었다”며 “주민에게 편드를 만들어 수익을 봤는데 중앙정부의 미움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박 전 군수는 직위 상실 5개월여 만에 내년 신안군수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평소 “고향에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 전 군수는 2006~2014년 신안군수를 지냈으며, 2018년 재선거를 통해 다시 군수에 복귀한 뒤 2022년 연임에 성공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전남관광재단, AI 활용 관광콘텐츠 인재 양성

19일까지 교육생 모집…교육비 모두 무료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생성형 AI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활용 관광 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관광 분야에서 기획·제작부터 홍보마케팅,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AI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이번 교육은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다질 기회로 주목

받고 있다.

교육 대상은 도내 대학생과 관광업 종사자, 창업 예정자 등 30명이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기본과정(21~22일·1박 2일·12시간)은 구글의 Gemini(글·이미지·음성), IMAGE FX(이미지 생성), Canva(시각 디자인), Perplexity(웹 리서치), Genspark(시각자료 생성) 등 다양한 AI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브랜딩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진행한다.

심화과정(27~29일·2박 3일·20시간)

은 AI 활용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기본과정에서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 계획서로 완성하고, SNS·블로그·영상 콘텐츠 제작과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실습한다.

참가비, 숙박비, 식비 등 모든 교육비는 무료다. 수료생에게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의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며, 창업 컨설팅, AI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창업 정보 제공과 매칭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shk1498@jin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세계최고 기독교 선교병원

120년 사랑의 발자취

나눔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선교병원

재단이사장
주계옥

병원장
이승욱

광주기독교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